

Issue Comment

- ✓ 지방선거 여당 압승, 정부와 원활한 SOC 예산 합의 기대
- ✓ 주요 지역 현안 SOC 인 공항, 철도의 탄력적 사업추진 예상
- ✓ 김해신공항 제외한 제주, 대구, 광주 등의 신공항 발주 기대

[건설] 지역 현안 SOC의 탄력적 추진 기대

- 줄어드는 SOC 예산 감축 기초 속에,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제시한 SOC 공약 및 기존 지역 현안 SOC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당선인들이 제시한 주요 SOC 공약이 주목받고 있음. 대표적인 SOC 공약으로는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의 가덕신공항, 경남지사 김경수 당선인의 서부경남 KTX 착공, 울산시장 송철호 당선인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등이 있음. 대부분의 SOC 사업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의 압승은 추후 정부와의 원활한 예산합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임
- 지역 포퓰리즘 SOC의 큰 키워드 중 하나인 공항의 경우 금번 선거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대구시장 권영진 당선인은 올해 안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 2020년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제주지사 원희룡 당선인은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에 막혀 사업 추진이 더뎠고 있는 제주신공항의 해결을 위해 좋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의 가덕신공항 공약은 다시금 지역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됨. 현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이 이미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이나,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의 갈등 (과거 부산/경남은 가덕신공항 지지, 대구/경북은 밀양신공항 지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임
- 김해신공항을 제외한 제주신공항,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 이전 등은 추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 둔화된 주택 경기와 감소하는 SOC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SOC의 탄력적 추진으로 공항 및 SOC 특화 지방 건설사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제시한 SOC 공약 정리

지역구분	당선인	소속	SOC 공약	비고
부산시장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6 조원)	기존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검토 (4 조원)
경남지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서부경남 KTX 정부 재정으로 착공	민자사업으로 검토중이던 프로젝트
울산시장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1.5 조원)	2022년까지 300MW 규모로 조성 예정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GTX A 노선 조기개통 지원	GTX A 노선 (킨텍스~삼성) 시공사 선정
인천시장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GTX B 노선, 제 2 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GTX B 노선 (송도~서울역 + 마석) 예타 검토중
강원도지사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동해북부선 (2 조원) 철도 건설	경협사업 중 하나인 동해선 단선 구간

자료: 각종 언론,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